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85호 The Seungni Shinmun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보광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어느 때에 말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에휴, 속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2000년 11월 7일 말씀에서」

구세주 보광 이후에도 항상 내리는 감로이슬성신 사진 모음

1차 옥고 때부터 보광을 계획하심

구세주께서는 헌금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죄로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실 때 재소자 중 친밀하게 지냈던 이동철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이번에 석방되어 나가지만 다시 옥중에 들어와 여기서 보광(普光)하게 된다." 이런 말씀에 이 씨는 "주님께서는 영육일체를 논하셨는데… 그리고 구세주는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것은 천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루었어! 내가 희생이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 영생 얻게 된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것이다.

과연 구세주의 그러한 말씀대로 7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옥중으로 들어가셨는데, 2차로 옥중으로 들어가신 구세주께서는 그곳에서 보광(普光)하신 것이다.

한편 주님께서 7년 옥고를 치르시던 당시 해동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청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보광과 관련된 꿈을 꾼 이야기이다.

"꿈속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는데 운동장을 빠져나와 오솔길로 계속 가시더니 보광식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리고 잠을 깼다. 출옥하신 주님께서는 3년 만에 다시 옥중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보광하셨다. 그런데 보광식을 치른 곳이 꿈에서 본 그대로 똑같았다. 그리고 보광식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새로 완공된 부천종합운동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천종합운동장에 직접 가서 처음으로 구경하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이상과 같이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보광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보광의식을 치르는 장소와 방식조차 인간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보광 이후도 실제 모습으로 현현

보광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해와주님한테 나타나셔서 보광하신 이유를 전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곧 해와주님께서 제단식구들에게 말씀하신 보광간증담으로 아래와 같다.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새벽에 보광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평소 아침 제단 나가는 시간, 제단에 도착하여 주님 집무실에 들어서는데 주님께서 먼저 당신이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입니다. 쇼파에 앉으셔서 들어오는 저를 빙긋이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고는 "고생이 많지? 여기 와 앉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그래."라며 푸념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중략)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단상에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 왔잖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중략)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전부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무죄판결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을 나와서 병원에 간 것은, 죄를 담당하느라 병든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분신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그래서 내가 사인불인천신강(似人不人天神降)이라고 했잖아? 내가 단상에서 한 설교말씀을 당신 못 들었어? 내가 평소에 단에서 한 말을 잘 생각해 봐. 그리고 내가 제단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은 얼굴로 만든다고 했어.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빛으로 변할 수 없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단에 매일 나와 열심히 예배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요. 감로 이슬성신이 항상 내리고 있어."

이슬성신·분신은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승리의 영

이슬성신·분신이 되는 성령의 빛은 피와 불과 연기기둥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지막 때에 구세주가 부어주는 승리의 영이다.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승리의 영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2003. 4. 2. 말씀). 죄인이 하나님이 되려면 죄인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이 없어져야 그 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불덩어리의 몸으로 변하여 썩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질이 함유된 공기만 마시고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이다.

영생의 길을 달리고 영생의 체질로 변하는 우리들은 '왜 사람들이 영생의 학문에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병들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길을 고집하는지 참으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0〉

"사람 몸의 빛은 생명"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본래 빛의 신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그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구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화하면 현재의 사람의 형상은 없어진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노년행복설계하기

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결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급속한 서구문화가 대거 유입되었고, 게다가 참혹한 6·25전쟁을 통해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윤리·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생활관까지 가세하여 '노인의 경제적 빈곤'이 한층 더 해졌습니다.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생겨난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로부터 노인문제를 점차 가족 밖의 사회적 문제와 책임으로 전환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처해진 심각한 노후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문제도 크지만, 일생을 자식에게 모든 걸 기울이고 바쳤던 무조건적 '뒷바라지'가 상당한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노인들에게는 노후생활을 대비할 겨를도 없이 전통적인 노부모의 가족 내 부양체계의 와해가 닥쳐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급속한 산업사회화에 따른 조기 정년과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의 실질적인 문호봉쇄(門戶封鎖) 또한 '노인의 경제적 빈곤'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현 노인세대와의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를 상호간에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전통생활관의 와해로 인한 노인 스스로의 노후생활에 대한 심적·물적 준비 부족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자라나는 세대와 더불어 당사자인 노인 세대들과 다 같이 새로운 '멋진 삶을 구상'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풍요를 누리게 한 기성세대에 대해 도의적·양심적 부양의무와 책임의식을 지녀야지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실업률을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사회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산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서구사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울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타적 인정(人情)과 대의(大義)라는 한민족 고유의 정서(人情)를 가지고 사회적 대통합과 화목을 정착시키려는 의지만이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물론, 현 청년세대들의 고충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노년에 들어서지 않는 세대는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내는 '멀티 플레이어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긴 노년의 삶까지도 경제적 난관을 잘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진해제단 연합예배를 보고 나서

연합예배날(2019.4.27) 많은 비가 하루 종일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아지랑이 속삭이듯 맑고 깨끗한 화창한 봄날씨였다. 올해는 진해군항제 불꽃쇼를 4월4일날 제단 앞 바닷가에서 했다. 3.1독립운동 스토리로 웅장하고 장엄하게 하는 것을 보니 "3.1 독립운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다. '아! 오늘이 진해제단 30주년(1989. 4.4. 진해제단 헌단일) 기념축하 행사를 불꽃놀이로 해주신 거구나.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에서 '주님을 알고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소리가 조용히 나왔다.

비디오 설교 말씀에서 주님은 3.1 절을 독립운동인줄로만 알지만 사실은 무너졌던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며, 3.1운동이 없었다면 임시정부수립이 없었고 광복절도 없었으며, 광복절보다 3.1 운동이 더욱 의의 있는 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는 하늘나라는 있을 수 없고, 3.1운동이 있었기에 이긴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셨다. 3.1절을 우리민족의 날로 알아야 된다고 하셨다.

1부예배 후 윤봉수 신도회장이 전도관에서 승리제단 오기까지의 간증담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으셨던 생생한 말씀에 더욱 하나님의 섭리에 숙연해졌다. 박상구 승사님의 섹소폰 "'이 세상의 다리가 되어" 연주 또한 감명스러웠다. 그 다음 순서는 진해식구들의 춤과 노래가 있은 후 이렇게 말했다. "올해가 3.1 운동 일어난 지 백 년째 되는 햅니다. 우리민족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날입니다. 이긴자 배출을 위해 그 모진 연단과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날은 온민족이 하나같이 단결하여 목숨을 바친 날입니다. 흩어졌던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완성의 하나님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날을 기념하여 백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감격의 이긴자와 승리제단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했다. 만세 삼창 하고 또 만세 삼창했다. 그리고 참석한 식구 전원이 '손에 손잡고' '승리제단'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모션을 취했다. 가슴 뿌듯한 감동의 물결이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DMZ(비무장지대) 따라 20만명이 손에 손잡고 평화의 인간 띠 500km를 만들어 만세 삼창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긴자께서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 후 다과회 때 뉴질랜드 신동식 승사님의 우렁차고 힘찬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는 주님" 찬송소리에 주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맘속으로 말씀드리면 웃으시면서 더 크게 힘차게 불러주시던 그때가 떠오르며 행복한 웃음이 자꾸 나왔다. 오늘 처음 만난 신 승사님인데 동생같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석선희 승사 / 진해제단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9 어버이날 경축행사 민병철 회장 플루트 연주 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2지역 2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김정순 승사

2지역 김혜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9년 6월 4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19년 5월 성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지회장: 김혜선)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구역 1등: 15구역(구역장: 김혜선)
2등: 34구역(구역장: 4지역)
3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개인 1등: 김정순 승사
2등: 김혜선 권사
3등: 안경미 권사 *